



삼국유사 감통편 '경흥우성'조를 통해 본 경흥의 생애에 대한 토론문

저자 (Authors)	김수태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 2011.6, 233-237(5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08869
APA Style	김수태 (2011). 삼국유사 감통편 '경흥우성'조를 통해 본 경흥의 생애에 대한 토론문.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233-2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5 13: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감통편 ‘경흥우성’조를
통해 본 경흥의 생애」에 대한 토론문

김 수 태(충남대)

발표자의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목에서 강조한 것처럼 경흥의 생애를 다룬 부분과, 경흥의 불교사상을 다룬 부분이다. 각각의 내용을 따라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자 한다.

1. 경흥의 생애

경흥의 생애를 다룬 내용 가운데에서 먼저 성씨와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현재 수씨로 보고 ‘중소귀족가문’ 출신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목씨로 보고 ‘대성팔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왜 발표자는 후자의 해석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보는지를 알고 싶다. 백제 불교계에서 가문이 좋은 것이 활동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다음으로, 백제 유민인 경흥이 승려로서 신라, 특히 문무왕에게 크게 주목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해주었으면 한다. 이 글에서는 백제 부흥운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흔적은 없지만 웅진도독부 시기 경흥이 신라군 또는 당나라군과 접촉했을 가능성과, 신라 측의 포섭작업도 집요했을 것임을 함께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술에서 그러하지만 이 글에서 서로 상반되는 여러 가능성을 한꺼번에 던지고 있는데,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신문왕대 경흥이 국로가 되면서 삼랑사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여러 중요한 사원들 가운데 삼랑사를 왜 신라 최초의 국사인 경흥을 위한 사원으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국사가 백제 유민을 통치하기 위한 국사가 아니라 신라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국사라면 국사가 머무를 사원으로는 삼랑사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성전사원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미륵신앙 및 화랑과 관련된 사원으로, 특히 김씨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원이라는 등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 담겼을 비문의 이해까지를 포함해서 삼랑사 관련부분을 더 언급해 주었으면 한다.

2. 경흥의 불교사상

먼저, 감통편에 ‘경흥우성조’가 포함된 이유를 더 말해주었으면 한다. 감통편의 의미에 대해 발표자는 경흥을 깨우치기 위해서 - 즉 불교 신앙자에게 일어나는 불가사의하고 기적적인 현상으로 중생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혹은 경흥 자신이 가진 감통능력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두 번째는 경흥의 유식사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발표자는 백제 불교사에서의 유식학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겸익부터 시작해서 의영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경흥이 이러한 백제 유식학의 전통 속에서 유식가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설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으로 경흥의 불교사상에 미친 당나라 불교의 영향을 강조한 의견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의 저술은 현장-규기의 신유식에 가깝다고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친당적인 인물로까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무언가 매우 복잡해진다고 하겠다. 경익 때부터 백제 불교에서 유식학을 상정할 수 있는지, 또한 과연 백제의 유식학 전통을 이어받은 것인지, 아니면 현장의 귀국 이후 혹은 경흥이 신라에 들어온 이래로 유식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이때 경흥의 또 다른 사상적 배경으로 언급되는 범화사상과 유식학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특히 경흥이 백제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할 때 그 사상적 기반이 당시 그다지 교단이 그다지 크지 못했다고 이해되는 유식학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등도 그러하다.

더욱이 같은 백제 유민인 의영의 유식학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따를 때 경흥의 유식학이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문제도 있다. 의영은 신유식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영의 경우 당시 신라 승려들의 유식학과 그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이 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크게 강조되고 있는 원측과 경흥의 대립이 과연 상정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어난다. 특히 원측이나, 백제 유민인 의영이나, 다른 신라 승려들과는 달리 경흥만이 이러한 사상적 경향을 고수한 승려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견해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다.

더욱이 의영은 원효 등의 입장과도 공통되는 부분이 찾아진다고 지적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으로 원효와 경흥의 사상적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즉 백제 유민출신인 의영과 경흥은 서로 어떤 사상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다. 다른 경향을 보였다면 왜 그러한지도 그러하다. 따라서 당시 유식학의 흐름과 경흥을 비롯한 승려들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발표자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홍의 미륵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다. 이때 당시 신라 중대 초의 불교계에서 경홍의 미륵신앙이 어느 정도로, 어떠한 사상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화랑을 모신 삼랑사와 경홍의 미륵신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며 미륵상생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화랑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경홍의 미륵신앙에서는 말법사상이 보여주듯이 미륵상생신앙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경홍이 미륵신앙을 강조할 때에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정토신앙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홍과 관련된 불교설화의 해석에 대해서도 간단히 지적해두고 싶다. 관음보살이 경홍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설화에 대한 해석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경홍이 국사라는 높은 지위에서 오는 호화로움을 마음껏 즐기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음보살 설화는 내용에 『화엄경』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보여주듯이 바로 뒤에 나오는 문수보살 설화의 내용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삼랑사 비문에서 그의 아름다운 덕행을 언급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경홍의 현세적 누림보다는 경홍의 깨우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여러 해석도 좋지만 조금은 더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경홍의 불교사상과 생애는 서로 맞물리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경홍의 불교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때 그의 생애도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홍의 생애를 다루는데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더 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경홍의

몰년을 710년 전후로 설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의자왕대의 경홍이나, 중대 초 원측과 경홍의 대립 등을 상정하면서 경홍의 생애를 살펴보려는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더 다양한 접근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은 조금은 소박한 것으로, 그 보다는 경홍이 살았던 시기의 복잡함과 역동성을 고려하는 역사적 상상력이 보다 더 동원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때 경홍의 생애를 몇 시기로 나누어서 살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경홍의 불교 사상 역시 그러하다. 왜냐하면 신라 중대 초 신라불교와 백제 불교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찰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라 중고기의 불교에 미친 백제 불교의 영향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백제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신라불교가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시기나 계기나 과정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때 신라 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경홍이 차지하고 있는 사상사적 위치가 제대로 파악될 것이다.